

송영길·이광재 돌아오고 한동훈 첫 입성... 재보선 판도 변화

(국회의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곳 당선
대통령실·靑 출신 인사들 성과
국힘 이진숙·김태규 국회 진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후보가 4일 부산 북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 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중진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고, 무소속으로 부산에 도전장을 낸 한동훈 후보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계양을 ▲경기 하남갑·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부안갑을 ▲광주 광산을 ▲제주 서귀포 등 총 9곳의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갑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0.63%를 얻어 39.63%를 얻은 박진진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고, 경기 하남갑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9.67%로 48.13%를 얻은 이용 국민의힘

후보에게 신승했다. 두 지역 모두 각각 박찬대·추미애 후보가 인천시장·경기지사 자리를 내주기 위해 사퇴한 곳이다.

이로써 송영길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하게 됐다. 송 후보는 이번이 6선으로, 당내 최다선에도 오르게 됐

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려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선거 중에도 전북지사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도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이광재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강원지사 출신으로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게 됐다. 2022년 강원지사 후보로 차출되며 의원직을 내려 놓았던 이 지사는 2024년 총선에선 경기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하남갑에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이 전 지사 역시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도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 아산을에 도전장을 낸 전은수 전 대변인, 그리고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모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특히 김남국 전 비서관은 국회 복귀에 성공한 경우다.

국민의힘에선 보수 텃밭인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가 59.06%를 얻어 40.93%를 얻은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울산 남갑에서도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51.15%를 얻어 42.62%를 얻은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진숙·김태규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한 인사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산 북갑에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2.96%를 얻어 41.26%를 얻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15.76%를 얻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부산에 도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의 복당 여부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후 한 후보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편 또 다른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힘 제로'를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27.38%를 얻으며 3등에 그쳤다. 해당 지역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34.64%로, 28.87%를 얻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이번 유세에서 조 후보와 김 후보의 공방이 극심해지며 양당 간 골이 깊어진 만큼,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요원하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헌법소원 가능성 제기

일부 유권자 개표 중단·재선거 요구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은 낮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유권자는 기다리다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유권자들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등 항의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유권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발발을 돌린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 개인실의 측면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 전날 언급했던 선거무효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점차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존재하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단순한 절차상 하자나 선거관리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위법이 없었다면 당락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해 왔다.

실제 선거 무효소송으로 이어지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대한 '선거효력 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선거인·정당·후보자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

해외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주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과정에서 선관위 준비 부족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 "선거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455개 투표구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독일 헌재는 특히 일부 투표소 운영 중단이 '공개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도 2022년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법원은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고, 이후 일부 유권자들은 행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카운티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합의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범죄 행위나 고의적 투표 방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뉴시스

李 대통령, 차기 총리 후보 3인 압축

강훈식 비서실장, 새 정부 최측근
정성호 장관, 李 활동 도운 5선 의원
한성숙 장관, 20년 만에 여성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 후보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예정으로 차기 총리 자리에 이들 3명을 놓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위해 이달 중으로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점쳐진다.

후임 총리 후보군에는 청와대와 내각에

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 거론된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도 활동하며 방산과 에너지·지원, 공급망, 첨단산업 등 경제·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대응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장관은 이 대통령과 39년 인연을 이어온 5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같은 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동기로서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부터 이 대통령의 당내 활동을 도왔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중책을 맡았다.

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내 포털 산업이 성장할 시기 IT 업계에 이끈 대표적인 여성 리더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여년 만에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뉴시스

정청래 책임론 고개... 與 당권 경쟁 본격화

>> 1면 '서울 역전패에 與'서 계속

정 대표는 오는 8월 말쯤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연임 도전을 위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비토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선거 다음날인 이날부터 정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로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평택을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종합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외양은 화려하지만 민

당이 서울시장에서 석패했다면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완승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르면 이번 주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송 전 대표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같은 '애매한 승리'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 총리가 주자로 나서면 선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합해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면,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 /서예진 기자